

내가 아는 노용희 교수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원고마감일을 넘긴지 오래된 지금에야 책상머리에 앉았다. 고주 노용희 교수님의 팔손을 맞이하여 교수님의 동문후학들이 교수님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화나 회고담을 담은 문집 <행운유수>의 발간준비를 하면서 나에게도 한 꼭지 쓸 기회가 주어진 것은 3개월 전의 일이다.

환경과 관련된 이런저런 모임에서 뵈 때마다 미래지향적인 중후한 발언으로 사안을 바로 잡아주곤 한 것에 늘 마음 든든해했던 기억은 분명하지만 딱히 엮어낼 말거리가 없는 탓으로 망설이고 있던 터에 간행준비위원회의 한 사람이 최후통첩을 내린 것에 밀려서 생각을 모으게 되었다. 실은 교수님의 말투에서 듣게 되는 특유의 이복 억양이 같은 실향민인 나에게 친정오라버니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 기회를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마음의 부담을 털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작용한 것이다.

내가 우리나라 석학의 한 분이신 노용희 교수님과 상면한 것은 내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지구환경정책학에 대한 늦깎이 공부를 하고 돌아온 1995년 말 무렵이었다고 기억한다. 오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녹색연합'의 공동대표로 지명되었을 때였다. 교수님은 그때 당시 그 단체의 고문이었다. 그 단체를 설립한 장원 교수가 제자여서 그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짐작한다.

교수님과 보다 가깝게 활동할 수 있었던 기회는 1995년도에 서울시가 민선자치정부로 출범할 때 환경행정의 가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면서 설립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초기구성원이 되었을 때였다. 당시 관료들의 행정우위인식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등한 파트너십관계수립이 쉽지 않았으며 '서울환경헌장'과 '서울의제21' 제정 과정에서 3자간의 마찰은 치열했다.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굵이마다에서 교수님의 적절한 언급은 주요했다. 기억력 부족으로 낱말이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다만 지금도 생생한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차분한 음성으로 논리정연하게 사안의 핵심을 부각시켜 문제를 풀어나갈 방향을 잡아주고 내용을 채워주던 모습이다.

교수님의 영향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40년간 길러낸 법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지역계획학 그리고 환경학도들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다. 학계, 정계, 행정계,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운동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바로 교수님이 배출한 인재들이다. 내가 관여하였던 '92년도에 설립한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95년도에 출범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02년도에 구성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수님의 학덕은 물론 환경철학을 이어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동량들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의 뿌리라는 것이다.

내가 교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이거나 좀 더 알게 된 것은 어떤 모임에서 교수님이 건네준 그의 제2수상록인 <비이장목>을 읽으면서이다. 이 책의 제목은 먼 데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 실은 글들이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는 20세기 말에 쓰였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자세를 밝히려 했다고 머리말에 적고 있듯이 열린 시각의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글들로 채워져 있어서 후학들의 길잡이가 되기에 족하다.

내가 특히 관심 깊게 읽은 부분은 5부에 담겨진 글들이었다. 교수님의 77년간의 삶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교수님이 조선팔도에서 과거급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다수의 우리나라 명사들이 태어난 평안북도 정주에서 4대가 동거하는 부농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나이에 서울 유학을 했다는 것, 고향의 명예에 걸맞게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했다는 것, 모교인 휘문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30명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둘째 날에는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 학부전공이 법학이었는데 세태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도시계획학과, 환경학과등을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초대책임자로 부임한 관계로 초대라는 호칭이 늘 따라다녔었다는 등을 알게 되었다.

교수님이 술회한 '내가 겪은 왜정시대' '해방 후의 나의 생활' '6.25 사변의 와중에서' 대목에서는 다섯 살이라는 나이차이는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 체험을 같이 한, 동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만주사변 다음 해에 태어난 나는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 시기를 거쳤다. 창씨개명, 광술따기, 송충이잡기, 길 닦기 등의 근로봉사, 무연탄가루를 반죽해서 겨울땀감을 마련하는 일, 방공훈련을 받던 일이 줄이어 생각났다.

내가 맞은 광복의 환희는 만주땅 길림에서였다. 우리 가족이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와서 겪은 2년간의 삶의 역정은 교수님의 집안은 부농이었다는 차이는 있으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녘 땅의 험란한 상황에서 빚어진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다는 점은 유사하다. 1946년 2월 교수님의 가족이 농토를 모두 몰수당하는 억울함을 감내해야 했던 무렵인 3월 1일에는 내가 다니던 정의여중 대강당에서 3.1절을 기해 학생들이 동맹휴교를 선언했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머금고 애국가를 불렀던 처절했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국민의례시 애국가를 끝까지 부르지 못한다. 목이 메어서이다.

내가 교수님에게서 친정오라버니의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고향을 이북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에서만은 아닌 것 같다. 동시대를 산 흔적이 묻어나는 그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6.25사변의 와중에서도 그렇다. 동란 초기 적 치하 90일간의 생활의 상황은 다르지만 전쟁이 발발했다는 가두방송소리를 듣던 일, 방공호 생활을 하던 일, 피난민 행렬을 따라 이리저리로 다니던 일, 은신 피난살이를 하던 일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교수님이 부산피난살이 법대를 졸업하던 때 나는 마찬가지로 부산에 자리 잡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전쟁으로 인해 파생된 일들을 수습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매몰되어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이었다. 그랬던 결과로 지금 나는 나의 후진들에게 학창시절에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학업만은 충실히 해야 한다는 권고를 빼놓지 않게 되었다.

교수님이 스승을 기리며 쓴 글인 '선생님과 같이 걸어온 지난날'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우선 놀라게 하는 것은 육하원칙에 따른, 살아온 세월에 대한 기억력이다. 기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기록이 있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난리 중에 어떻게 기록할 수 있으며 보전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 나의 견식부족으로 뜻을 읽어내지 못하는 어구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였지만 물 흐르듯 하는 필력에 매료되어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읽으면서 나이로는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교수님과 나 사이의 월등한 차이를 확인하면서 (교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가?) 남편에게서 가끔 들었던 '일찍 스승을 만났더라면 오늘과는 다른 박영숙이가 되었을 터인데'하며 아쉬워하던 말이 생각났다.

교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수님에게 허용된 가장 큰 행운은 무엇보다도 스승들을 잘 만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교수님의 학창시절의 됃됨이를 포착하고 그 것을 키워주고 발탁해서 기량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이국에 유학을 보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하고 그 분야의 열매를 맺기까지 밀어주는 스승들이 있었다.

교수님은 스승들에게 보은하려는 것일까? 내가 듣는 대로는 교수님은 길러낸 후학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에는 물론 시민환경운동에도 가담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수님은 사회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표출된 1980년부터 이 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한 시민의 참여 즉 NGO의 역할을 석학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점이 교수님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최초의 호칭을 얻게 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참여정부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펴고 있는 역대 최악의 반환경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나라 107개 환경운동단체가 환경운동사상 최초로 '환경비상시국'을 선포한 바 있다. 추운 날씨에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활동가들이 광화문의 열린공원에서 하고 있는 연좌시위의 앞자리를 지켜주었던 일이 눈에 선하다.

최근에 내가 교수님을 뵈는 것은 지난 5월 23일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4기 위원장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첫모임에서였다. 환담을 나눌 기회는 없었으나 회의장에서 자리를 뜨기 전에 남겨주신 말씀은 할 말은 하는 옛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난 40년간 20년이 늘어나 80세가 되었고 앞으로는 그 추세가 빨라져서 90세~100세까지도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 발간된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책의 저자는 100세 인생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의무이행의 삶을 살았다면 후반부는 자기의 삶의 보람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교수님의 후반부의 삶의 와중에서 멀리서 지켜보는 저의 눈에는 정말 보람을 찾아서 사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나도 후반부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이 탓으로 돌리는 일을 가볍게 해오던 차 반성하는 계기가 주어졌다. 하나는 지난 5월 30일에 개최된 이화대학교창립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104세의 동문을 만난 데서였다. 아직 부축을 꼭 받아야 하지도 않으며 청각장애가 약간 있을 뿐 주고받는 대화도 불편함이 없었다. 더욱 놀란 것은 독립투사인 유관순 열사보다 한 해 후배이면서 독립운동을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이다. 아득한 역사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있는 유관순열사의 동지를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은 믿기 어려웠다.

또 하나는 지난 6월 7일 작년에 95세를 일기로 작고한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 박사를 추모하는 행사에 초청된 94세 된 그의 부인을 만난 일이다. 매주 세 번 이상 테니스를 치는 가하면 혼자서 가방을 메고 끌며 하는 장거리여행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날도 오전에 몇 차례의 인터뷰가 있었고 1시부터 시작된 행사에서 연설을 거침없이 할 뿐만 아니라 청중과 마주앉아 5시간을 외국어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눈 한번 감지 않는 모습에서 나이평계를 대던 버릇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나는 또한 70세를 넘겨서 인생을 꽃피운 사례도 알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63세의 나이에 제8대 유엔난민기구(UNHCR)의 고등판무관으로 취임하여 10년동안 해마다 지구를 세 번 도는 거리를 방탄조끼를 입고 누비면서 현장중시의 난민구호활동을 한 일본 여성의 경우이다. '난민의 어머니' 도는 '일본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는 그는 지금도 국제무대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어서 고령사회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교수님은 이제 팔순이다. 교수님의 후반부 삶의 절반은 이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

이 되어주고 있다. 앞으로 그 남은 절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어떤 모델을 보여줄 것인지 그 기대가 크다. 그리고 건강을 빈다.